영광군, 군남면 양계장 건축허가 싸고 마찰

주민 "생태마을에 허가 내 줘 청정환경 망쳤다" 민원 제기
군 "신축예정부지 거주 세대 없어 조례 저촉사항 없다" 맞서

영광군이 군남면에 양계장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 마을 주민과 군청, 사업주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영광군 군남면 주민 L씨가 지난달 14일 "군이 생태마을 인근에 양계장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정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영광군이 양계장 건축을 허가한 군남면 대덕리 일원은 지난 2009년 영광 군남면 8개 마을이 함께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해 국비 53억여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주민종합센터 및 농촌마을 소득지원 사업으로 농·어촌체험시설 등을 갖추게 된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된 청정지역으로 농촌 생태체험 마을인 초록이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양계장은 당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추진위원장이며 마을권역 이사와 마을 이장인 J씨가 원래 사업계획 부지를 변경해서 자신의 땅에 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농어촌소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5동의 펜션을 건축·운영하면서 이 펜션 인근 자신 소유의 땅에 양계장 허가를 받아 양계장을 건축하고 있다.

또 이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양계장을 짓기 위해 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황이어서 군이 이곳에도 양계장 허가를 승인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건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제한지역내 거주하는 임가 세대주 80%이상 동의 및 제4조에 따른 신축예정부지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없어 저촉사항이 없다"며 "J씨가 지난 2017년 2월27일 건축신청을 해서 2018년 9월 17일 양계장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양계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2월 24일자 허가신청을 한 상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L씨는 "영광군의 양계장 건축허가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생태마을을 지켜야할 영광군이 추진위원장이었던 마을 이장에게 양계장 허가를 내줘 청정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광군 군남면 농촌생태체험 마을인 초록이마을 인근에 양계장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영광군 군남면 초록이마을에는 대덕리 1694-1과 1693-2번지 1175㎡와 2250㎡규모의 양계장(육계) 건축허가 2건이 승인을 받았고 영광군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인근지역인 대덕리 147외 11필지에 1만128㎡ 규모의 양계장 허가신청 1건이 군에 접수돼 허가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흑산도 상라봉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바다 품은 섬 자전거길' 8개 노선 선정

신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선정한 '바다를 품은 섬 자전거길'에 1004섬 자전거길 8개 노선 전부가 뽑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길 선정은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섬 지역의 숨겨진 자전거 길을 발굴해 자전거 동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섬 자전거 길에는 전국에서 추천받아 13개 지자체, 30개 섬 23개 노선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전거 길은 행복나눔 홈페이지에 게시돼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동호인에게는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계획이다.

책자에는 섬 자전거길 노선안내, 감상포인트, 주변관광지, 먹거리 등 자전거 이용 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코스는 해송길과 광활한 염전을 감상할 수 있는 증도, 눈부신 대광해변 백사장과 푸른 대파길 임자도, 섬 전체가 천사상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하의·신의도, 검푸른 빛이 감도는 바다와 기암 절벽이 어우러진 흑산도 등이 포함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초·중·고·특수학교 교무행정사 직무연수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교무행정사 38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무행정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무행정사의 역할과 교무행정 지원 업무에 대한 토론식 수업'과 'PPT를 활용한 입간판 만들기 및 PDF 파일 편집 기법' 등의 직무 연수와 문화 체험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모둠토론 수업 형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간의 갈등과 고충사항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김민정 함평골프고 교무행정사는 "이번 직무 연수가 전문성을 갖춘 고유 업무 수행자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문화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영숙 함평교육장은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역량 강화 연수를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무안쌀 1000억원 규모 판로 확보

무안군, 국내 최대 유통 업체와
4년간 고품질쌀 구매약정 체결

무안군이 국내 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인 (주)여주농산과 4년간 1000억원 규모의 무안 쌀 구매약정을 체결했다.〈사진〉

지난 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약정식〈사진〉에서는 무안군과 전남도가 무안 쌀의 판매를 지원하고 농협양곡(주) 무안지사가 공급을 책임지며 (주)여주농산이 적정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의 4자간 약정이 체결됐다.

(주)여주농산(대표 전오수)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로 쌀, 잡곡 등 곡물을 판매하여 연 1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이다.

무안군은 전체 경지 2만ha 중 8000ha에서 7000여명의 농민들이 벼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쌀 생산의 중심 지역이다.

무농약 1900ha, 유기농 300ha 등 전체 경지의 11%인 2200ha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무안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무안 쌀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논에서 신선한 해풍과 맑은 물로 재배하고 단백질 검사 등으로 철저하게 미질을 관리하고 있어 영양은 물론이고 밥맛까지 좋은 쌀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쌀 '러브 미(米)' 인증 2회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12회 선정된 농협양곡(주)무안지사의 '황토랑쌀'을 비롯해 3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4개 업체에서 23개 브랜드로 판매하는 무안 쌀은 친환경 고품질 쌀로 평가받으며 전국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약정에 따라 농협양곡(주)무안지사에 포장재와 홍보비를 지원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약정한 물량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도록 관리하는 등 무안 쌀 생산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영광소방서, 폭염피해예방 급수지원 등 대민활동 강화

영광소방서는 최근 폭염 재난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급수지원 등 대민활동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재해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와 마을 등을 중심으로 폭염 해제시까지 강화할 대민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용 식수와 가축 음용수 지원, 저소득층 거주지역 등 폭염 취약지역 물 뿌리기, 살수차 운용에 따른 소방관서 내 소화전 지원 등이다.

또 소방력 부족시 관할 남·여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 봉사와 지원활동을 펼치게 하는 등 폭염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본격 운영

무안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일 무안읍 중앙로 상가 2층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안읍 중심상가 상인회와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업무공간과 회의실, 주민들과의 교육·휴식·소통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됐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의견과 정보를 나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안지역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로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무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